

2024년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202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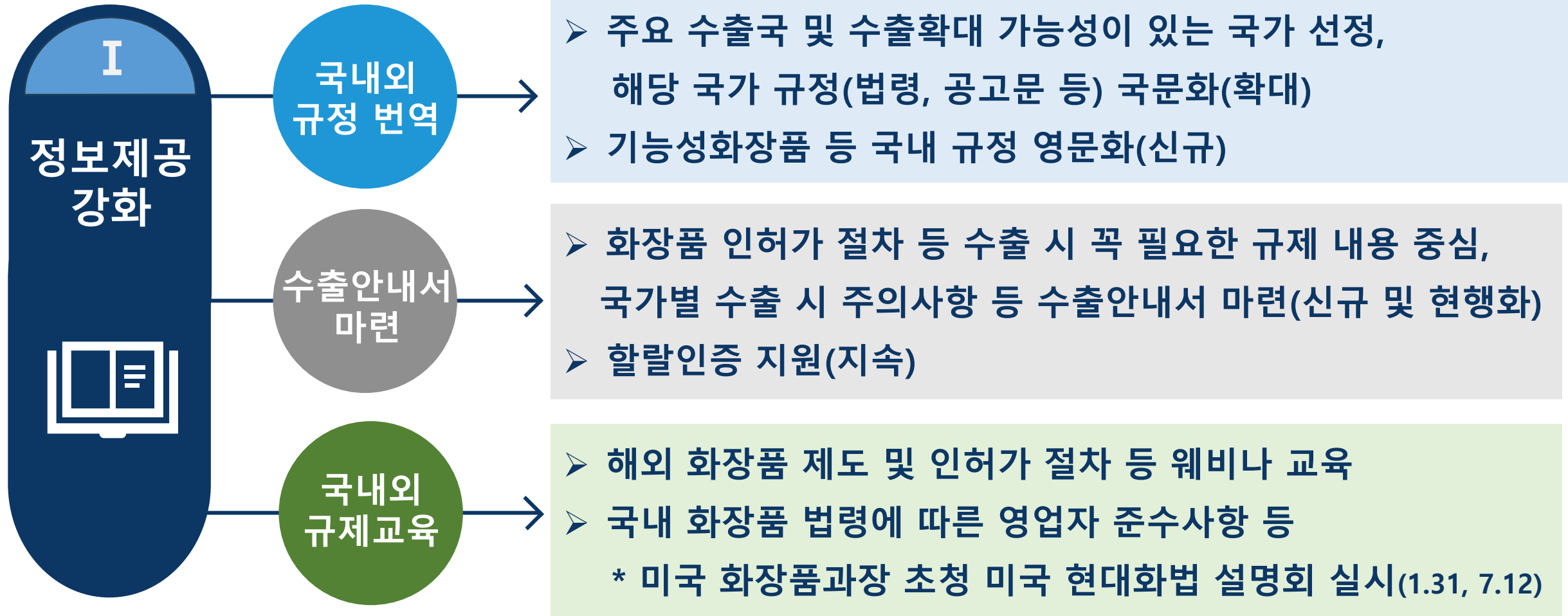
화장품정책과

김대기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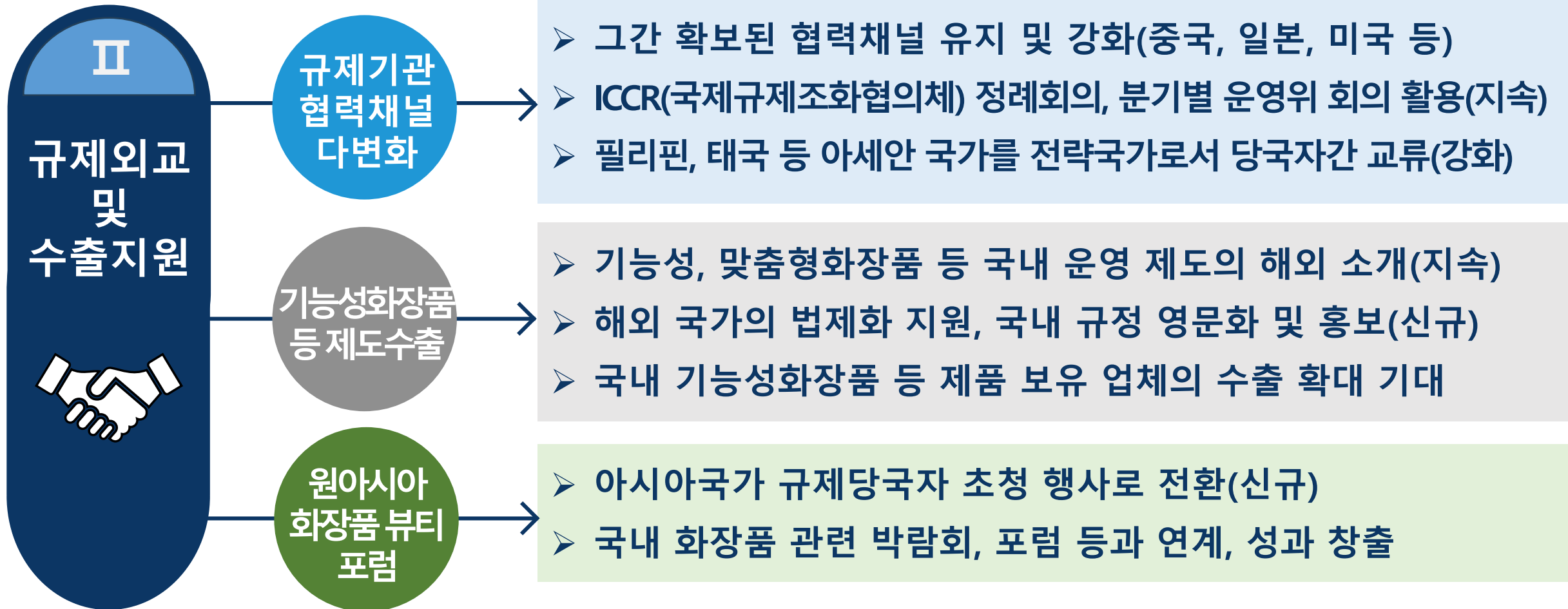
CONTENTS

- 01. 2024년 추진 체계
- 02. 2024년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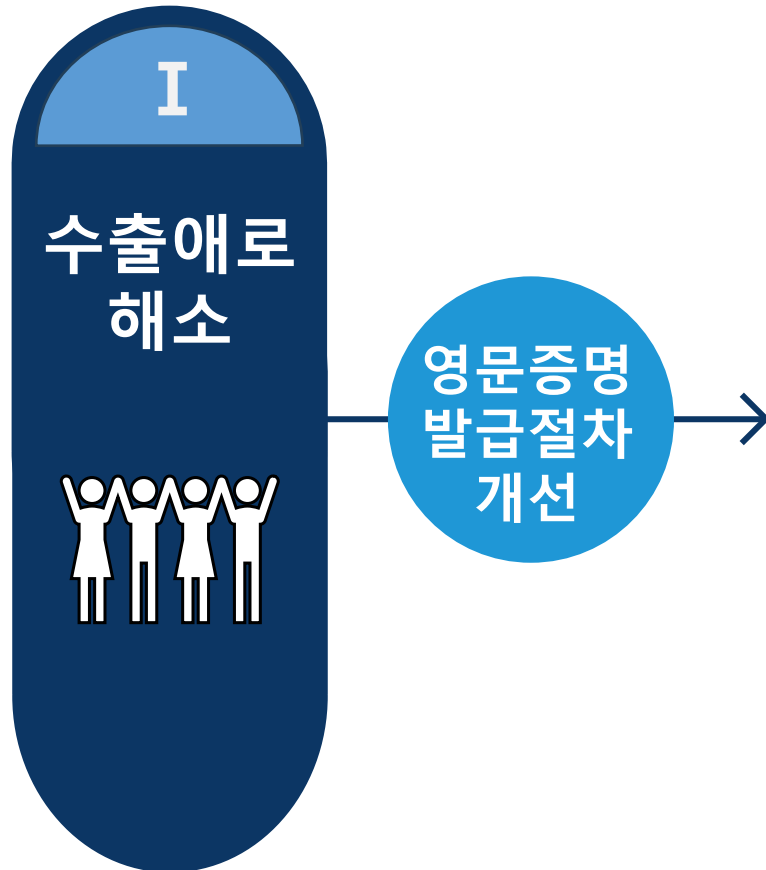
2024년 추진 체계(1)



2024년 추진 체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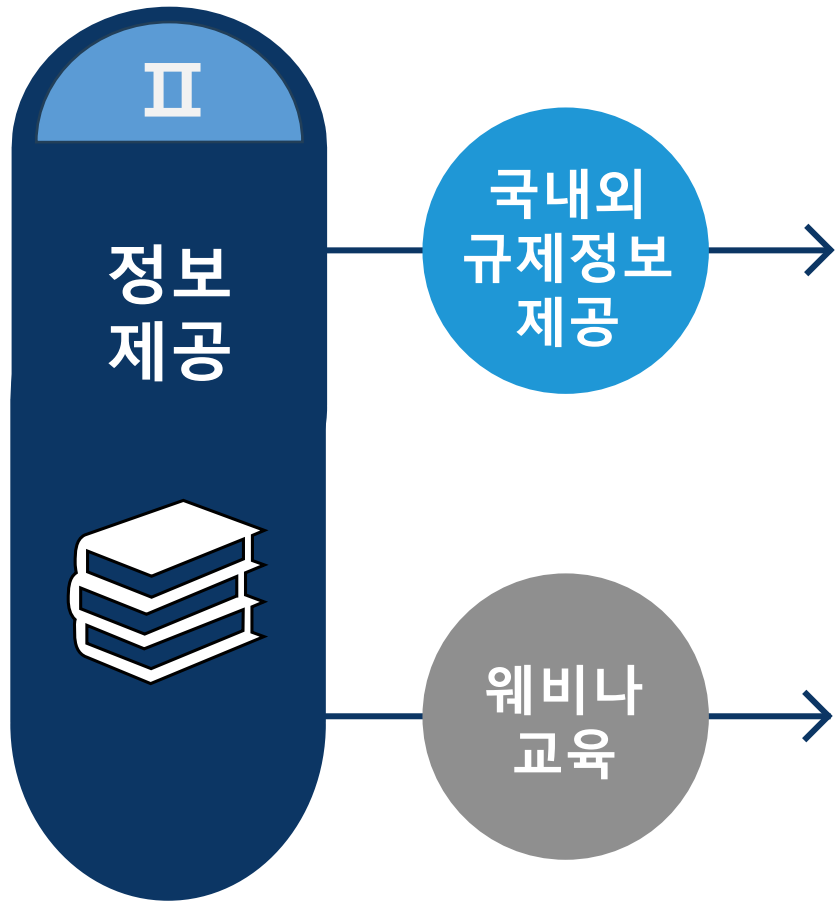
2024년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현황(1)



- 협회 발급 화장품 영문증명서의 공증 거쳐 본부영사확인서 등 발급
 - 재외동포청과 화장품 영문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업무협약(6.28)
 - 영문증명서 발급절차 등 검토 및 자료 공유(~7.9)
 - 공증절차 불필요 공문 회신(7.15, 재외동포청 → 식약처)
-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6종*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 생략하고 본부영사확인서, 아포스티유를 발급(7.22~)

* ①제조판매증명서, ②제조증명서, ③제조업자증명서, ④책임판매업자증명서, ⑤기타 주소변경증명서, ⑥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2024년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현황(2)



➤ **(수출 안내서 제공)** 화장품 인허가 절차 등 규제 내용 중심으로
국가별 수출 시 주의사항 등 안내

* 멕시코, 베트남, 태국 등(신규 5개국), 미국, 캐나다 등(현행화 5개국)

➤ **(국내외 규정 번역)** 주요 수출국 및 수출확대 가능 국가 중심 해외
규정 번역 및 국내 제도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 영문화

* (해외) 업계의 수요가 있는 중국, 유럽, 미국, 대만 등 7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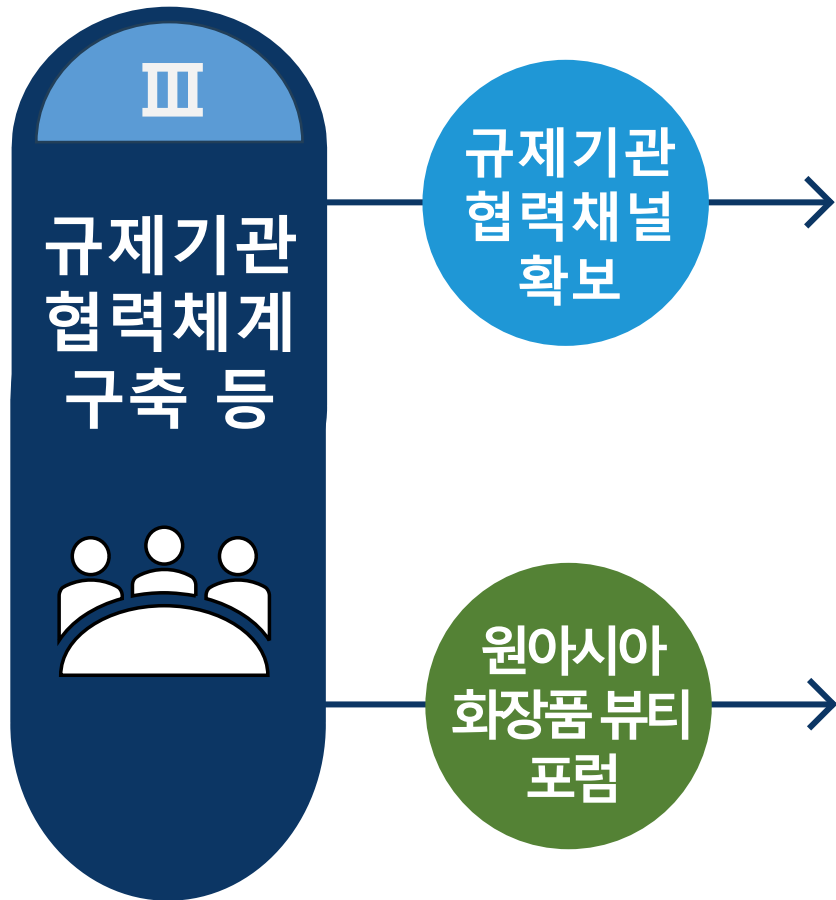
(국내)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10개 이상

➤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운영, 주요 수출국 인허가 등 규제교육**

- 국내외 화장품 제도, 인허가 절차, 준수사항 등 교육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17회, 총 4,773명 수강)

2024년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현황(3)



- 미국 FDA 초청 화장품 현대화법(MoCRA) 규제 설명회(1.31, 온라인)
- 필리핀 식약청 대상 한국화장품 제도 교육(3.12~14, 온라인)
- 중국 약감국과 협력회의 및 화장품 등 MOU 체결(5.16, 한국)
-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인증 협력 논의 고위급 면담(7.3, 한국)
- 미국 FDA 초청 화장품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7.12, 한국)

- 아시아 당국간 규제협력 위한 포럼 개최(10.17~19, 한국)
 -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
 -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필리핀 식약청과 화장품 규제협력 MOU 추진 합의
 -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과장급 협력회의
 - 일본 화장품협회와 교류 및 협력 증진 회의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 ✓ 국가 규제기관이 개최하는 아시아권역 대표 화장품 포럼 인식 강화
- ✓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다자간 첫 규제협력 채널 구축
- ✓ 한-필 화장품 규제협력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발판 마련
- ✓ 글로벌 화장품 규제 선도 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연말뉴스
식약처, 킨텍스서 '원 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사흘간 개최
송고시간 | 2024-10-17 09:46

| 아시아 규제 당국 모여...아모레퍼시픽·유원화장품협회 등 강연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국악차 거를 채운아 둘 08 글자]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아시아 각국 화장품 규제 당국자의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화장품 규제 현황을 공유하는 포럼이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사흘간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24 원 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은 국내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해 2014년부터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여 열렸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포럼 개막일인 이날 오전에는 9월 7일로 지정된 '화장품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김승환 아모레퍼시픽(090430) 대표의 '재창조된 아름다움-미래의 핵심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규정 등에 관한 존 체이브 유원화장품 협회 사무총장의 특별 강연 등이 열린다.

18일은 뷰티 기술 현황과 첨단 기술 적용 제품, 규제 동향 등에 관한 강연·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가림
韓 화장품 해외서 훨훨 날도록...식약처 "규제 외교로 K뷰티 수출 지원할 것"
정주영 기자
입력: 2024-10-17 18:13:53 수정: 2024-10-17 18:28:29

2024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아시아 7개국 규제 담당자 초청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이 열렸다. (왼쪽 5번째부터)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서, 오우림 식품약품안전처장, 차기대 일리안 식약청장 (사란 = 식품약품안전처)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 규제 연화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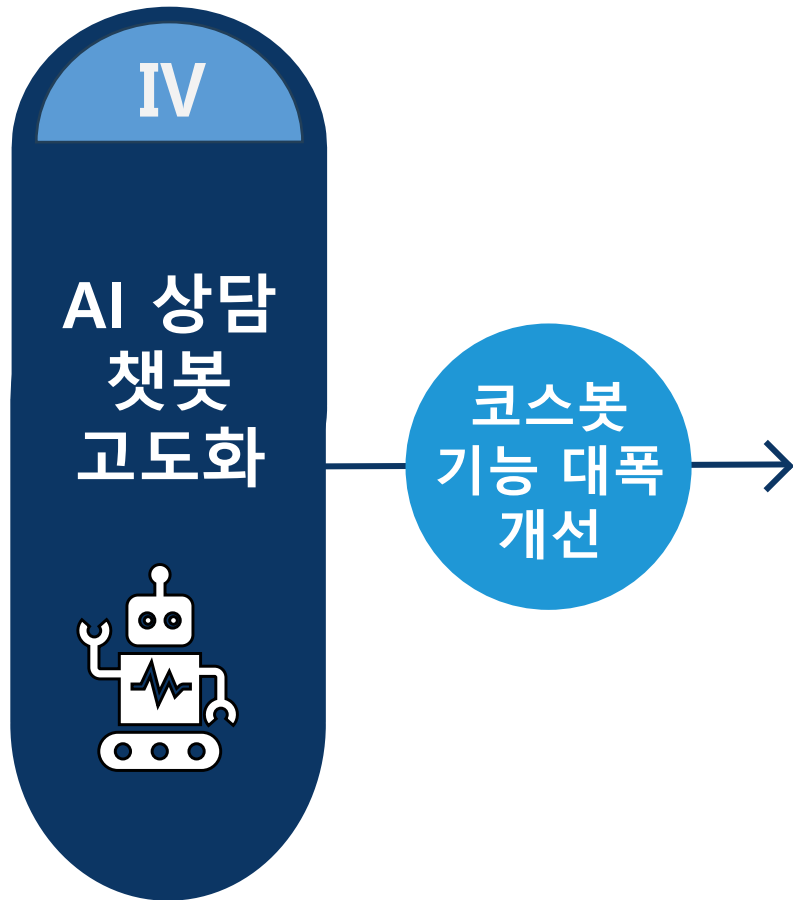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 참석한 오우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규제 조화를 추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주관하고 대한화장품협회·한국화장품수출입협회가 공동 후원하며 매일방송 MBN이 미디어 파트너인 행사다.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1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각국이 지난 10년간 화장품 수입 규제를 얼마나 조화롭게 풀어왔는지를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아시아 7개국 규제기관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대했다.



2024년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현황(4)



- (제공 정보 범위) 국내 주요 상담 사례 → 국내외 전반적인 규제정보
 - * (학습완료) 중국, 유럽, 미국, 대만, 인도, (진행) 태국, 인도네시아(11월 완료 예정)
 - (답변 형태) FAQ 기반 시나리오형 →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 * AI 학습 내용을 토대로 최적의 답변 작성·제공, 연계 추가 질의 가능
 - (디자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디자인으로 개선
 - *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helpcosmetic.or.kr) 통해 PC, 모바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
- ➡ 'AI 코스봇' 베타 테스트 운영 및 개선 의견 수렴(10.28~11.10)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식품의약품안전처